

홈케어노동자 교육자료

(Training for Homecare Workers)



APRIL 2013
(KOREAN VERSION)

오늘의 토론 주제



- 홈케어노동자는 누구인가
- 홈케어노동자의 노동조건
- 홈케어노동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법
- 홈케어를 둘러싼 논쟁적 이슈들
- 홈케어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들

주제 1



“홈케어노동자”는 누구인가?



“홈케어노동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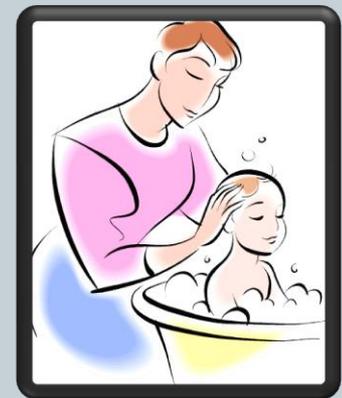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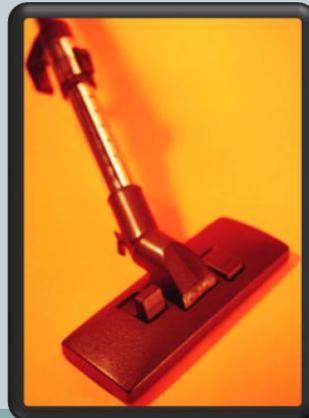
• “홈케어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돌봐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홈케어노동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 “홈케어노동자”는 고객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건강관리: 정기적 건강관리와 투약 등 의료관련 업무
- 2) 일상생활보조: 청소, 식사준비, 목욕서비스, 개인위생 등



왜 이들이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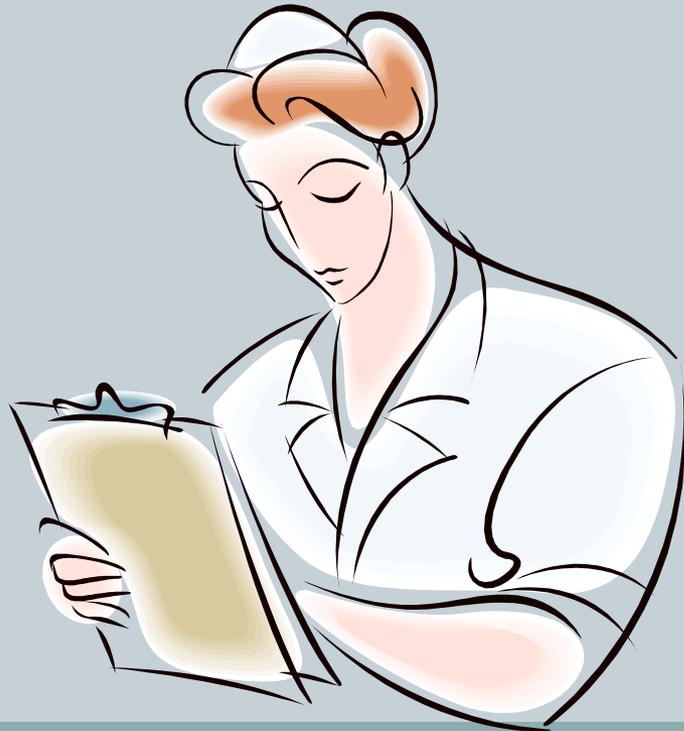


- 노인과 장애인의 개인활동을 보조하는 것이나 집안일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 그러나, 홈케어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건강관리업무입니다. 또한 홈케어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객들을 사회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주제 2



노동조건



홈케어 노동의 일반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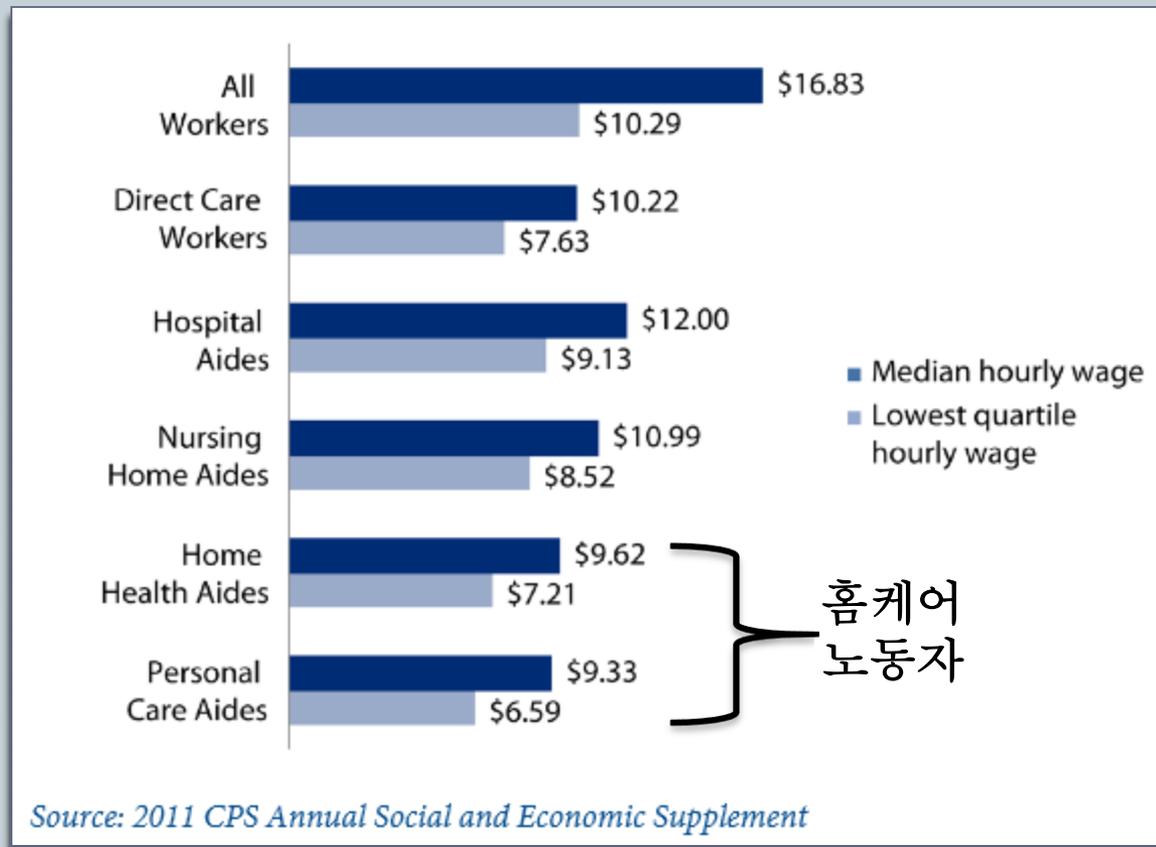


- 미국내에 2천5 백만명.
- 1990년대, 홈케어노동 부문이 미국내에서 4번째로 큰 직업군.
-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이기도 함.
- 홈케어노동에서 여성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대다수의 홈케어노동자가 40-50대 여성 임.
- 홈케어노동은 고용보장과 노동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노동조건이 상당히 취약함.

시간당 임금은 얼마인가?



미국내 다른 케어노동 종사자와의 비교



시간당 임금은 얼마인가?

미국, 캐나다, 한국 비교

	미국		캐나다 (캐나다 달러)		한국 (미국달러)
	연방		연방		
최저임금	연방	7.25	연방	-	4.48
	캘리포니아	8.00	온타리오	10.25	-
	와이오밍	5.15	알버타	9.75	-
평균임금 (최하위 25% 층)		9.47 (6.90)		12.71*	6.00

- 자료 : 2011 U.S. Census Bureau's Current Population Survey from Smith , 2012.
- Canadian Home Care Association, 2003* (2003년 이후 캐나다 전국 수준의 홈케어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음)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12

몇 시간이나 일하나?



미국내 주당 평균 노동시간 (%)

FIGURE 2. DISTRIBUTION OF AVERAGE WEEKLY HOURS WORKED AT MAIN JOB,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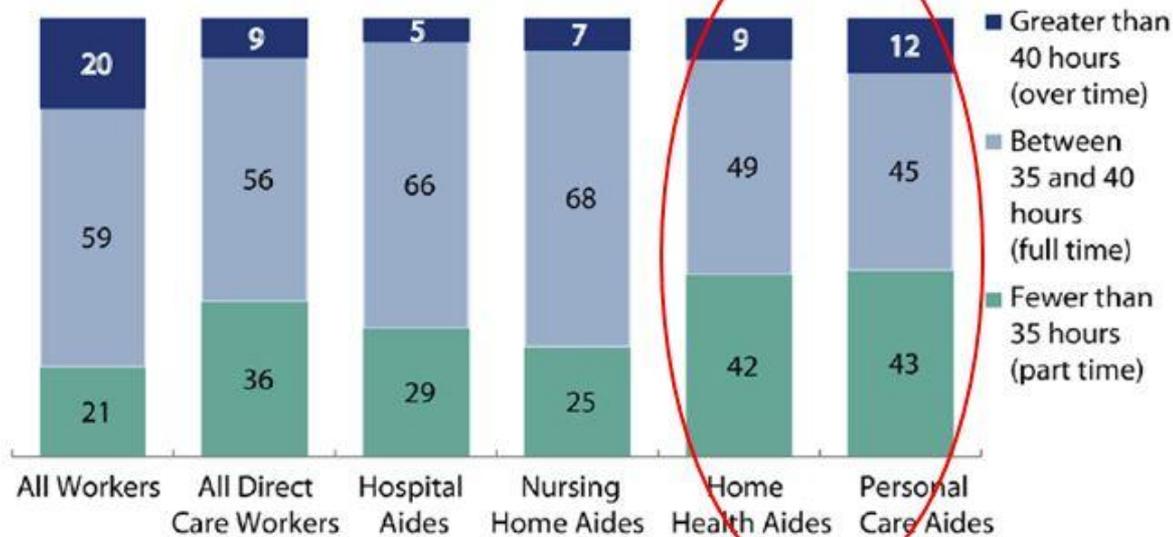


Figure from Smith (2012)

몇 시간이나 일하나?

미국, 캐나다, 한국 비교



미국

- 비정규직(파트타임)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대부분은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 비정규직(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이 흔함.
- 일부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밖에 일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40시간 이상 일을 함.
-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주 달라져 예상하기 어려움.



한국

- 비정규직(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이 흔함.
-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5-30시간 정도 일함.
-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져 예상하기 어려움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고 있나?



미국
없음



캐나다
없음



한국
없음

쉬는 날, 병가, 유급휴가는 제공되는가?



미국
없음



캐나다
일부분 있지만 열악



한국
없음

근무배치와 이동



- 하루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명의 고객을 돌봐야 함.
- 따라서 여러 고객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하지만 이동비용과 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함.
- 짧은 시간안에 많은 일을 해야함.



홈케어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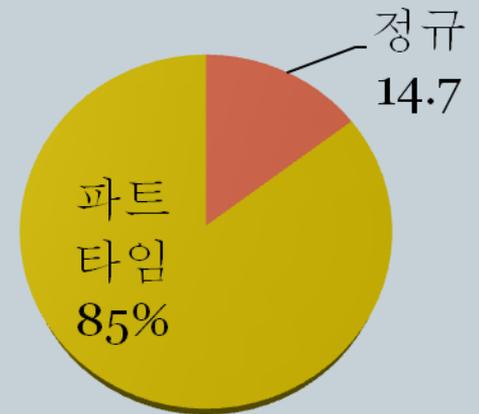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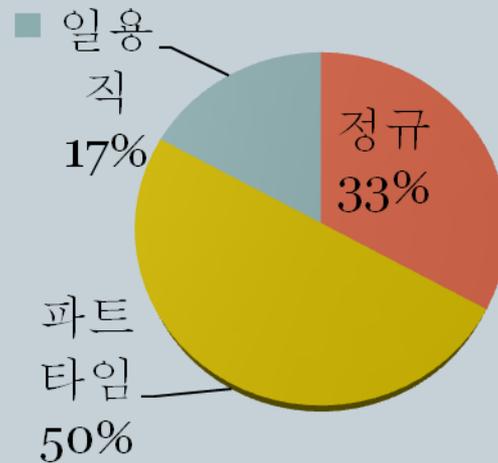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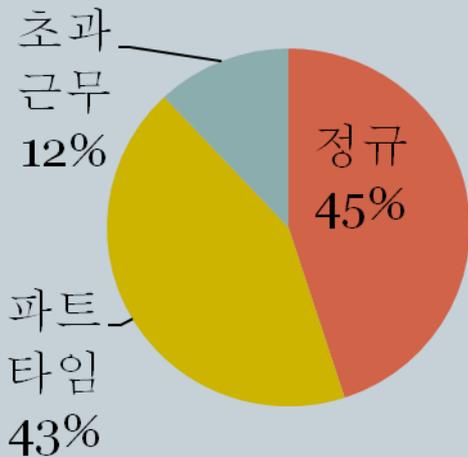
일부 홈케어노동자들은...

- 근무 관련하여 다치거나,
- 고객이 비협조적이거나,
- 고객과 고객의 가족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장과 고용안정성

- 일정한 근무 시간 보장이 안됨
- 근무 일정이 들쭉날쭉하여 예상하기 어려움





홈케어노동자들이 걱정하는 것들

- 임금이 너무 낮다.
- 고용이 불안정하다.
- 사회보험,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혜택이 거의 없다.
- 홈케어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어떤 노동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임금 수준이 향상되어 한다.
- 근무시간 이동시 이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어 한다.
- 근무일정이 어느 정도 고정적이어야 한다.
- 복리후생 혜택이 향상되어야 한다.
- 홈케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

주제 3



관련법과 규정들



홈케어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무엇이 있나?



- 홈케어 노동자들이 미국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제외됨.



- 홈케어 노동자들은 캐나다 고용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에서 제외됨. 그러나 최저임금은 보장되고 있음.



- 홈케어 노동자들은 한국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에서 제외됨. 그러나 2009년부터 일부분 포함됨.



미국의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 **1935** : 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가사노동자와 농업노동자들은 법의 혜택에서 제외됨.
- **1938**: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가사노동자와 농업노동자들은 법의 혜택에서 또 다시 제외됨.
- **1970** : 직종안전 건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가사노동자는 제외됨.
- **1974**: 수정된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가사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됨. 그러나 베이비시터와 노인 돌봄이 (“companions”)는 제외됨.
- **2007**: 대법원 결정. 노인돌봄이는 시간외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 법원은 홈케어 노동자를 노인돌봄이로 간주함.
- **2010** : 가사노동자권리장전 (**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 노인돌봄이 예외규정 (companionship exemption) 때문에 홈케어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 법에서도 제외됨.
- **2011**: 국제노동재단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 ILO**) 에서 평등노동법을 제정했음. 그러나 미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음.

미국 근로기준법 수정안



- 2011년 12월 15일, 오바마 정부는 미국 근로기준법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노동청 장관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President Obama on Ensuring Fair Pay for In-Home Care Workers

See Video...

1

2

3



캐나다의 법률을 들여다 봅시다



가정관리사 예외 조항

- 홈케어 노동자들은 “가정관리사”로 분류됨.
- 캐나다 건강법에서 제외(1984)
- 고용기준법에서 제외 (Employment Standards Act)



Labour
www.labour.gc.ca

Employment Standard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cency at work underlies all labour standards legislation...

Fairness at Work: Federal Labour Standards for the 21st Century



한국의 법률을 살펴봅시다



- 한국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음.
- 홈케어 노동자(재가요양보호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불분명 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홈케어 노동자(재가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반면, 노동부는 2009년에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 이 때부터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됨.
- 홈케어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즉각적인 투쟁, 로비, 피켓팅의 결과로 2009년 다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또한 부분적이고, 직장에 따라 법 적용의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정부에서 고용주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주제 4



논쟁적인 이슈들

1. 일터로서의 “가정”
2. “진짜 일”으로서 돌봄노동
3. 동반자 예외조항 (companionship Exemption)
4. 장애인/소비자 권리 vs. 노동자의 권리

일터로서의 가정



-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홈케어 노동자들은 언어 폭력, 성희롱, 그리고 육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일들은 외부와 고립된 고객의 집에서 일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한다.

일터로서의 가정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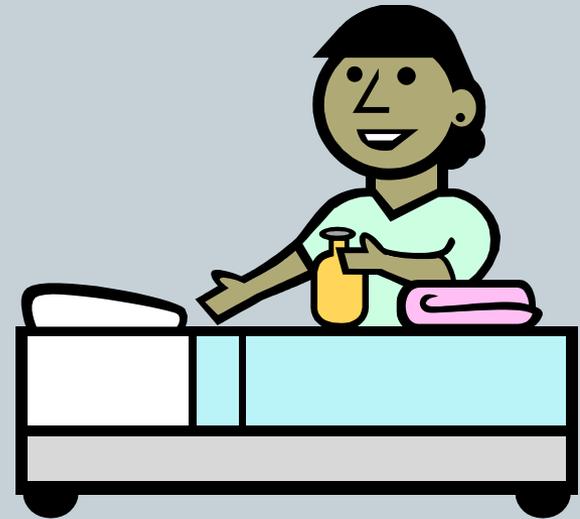
-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고객의 집에 비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케어 노동이 다른 노동과 다른 점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의 차이이다.



“진짜 일”로서 돌봄노동



- 홈케어 노동자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그들의 직업이 절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낮은 임금, 불안정한 근무 일정, 부족한 복리후생 혜택, 육체적 노동 등의 노동조건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 홈케어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도 한 몫하고 있다.
- 그러나, 조금만 과거로 되돌아 보면, 오늘날 “진짜 일”로 여겨지는 많은 직업들도 한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로 취급되곤 했다. (예., 요리, 세탁 등등)





- 돌봄노동이 “진짜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때문에 홈케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증가하는 돌봄노동 서비스 수요를 감안할 때,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짜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동반자 예외조항 (Companionship Exemption)



- 미국 근로기준법의 동반자 예외조항 (companionship exemptions)은 홈케어 노동자를 “진짜 노동자”가 아니라 노인들의 “동반자” 혹은 “말벗” (companion)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홈케어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기 힘들다.
- “동반자” 혹은 “말벗” (companionship)라는 용어는 1970년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 등장했다.



- 동반자 예외조항은 홈케어 노동자를 보모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홈케어 노동자들의 일을 노인들을 지켜보는 것 정도로 축소시킴으로써 이런 일은 “진짜 일”이 아니라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 이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과견업체들은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을 마치 용돈 벌러 나온 십대 청소녀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결과적으로, 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홈케어 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규모는 840억 달러 (84조원)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중에 하나다.

장애인/소비자 권리 대 노동자의 권리



소비자



캘리포니아
주



IHSS
공공당국

- ✓ 고용
- ✓ 해고
- ✓ 작업감독
- ✓ 근무시간
확인
- ✓ 본인분담금
납부
- ✓ 노동자에게
추천서 제공

- ✓ 노동자에게
임금지급
- ✓ 소비자의
세금 지급
- ✓ 자격조건이
되는
노동자에게
연금,
고용보험,
장애보험을
제공 를 제공

- ✓ 단체교섭시
정부측 주체
- ✓ 자격조건이
되는
노동자에게
의료보험과
교통비를
지급
- ✓ 자격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에
게 교육 제공

- 누가 홈케어
노동자의 고용주인가?
(셋 모두 다)

- (from IHSS handbook,
2008)

장애인/소비자 권리 대 노동자 권리



- 캘리포니아주 IHSS는 노인과 장애인이 수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임금이나 고용복지 혜택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다.
-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것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에의 권익에 반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홈케어 노동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파업하게 된다면, 일반 여론은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보다는 소비자들 동정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 우리는 여성들이 저임금과 복지혜택이 전혀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 아니면, 우리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가?

주제 5



- 홈케어 노동자의 조직화 역사





- 홈케어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조직화 역사가 오래 되었음.



- 상대적으로 홈케어 노동자의 조직화 역사가 짧음.



- 홈케어 노동자의 조직화 역사는 아주 짧다. 그러나 전투적이고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는 중.



미국의 홈케어 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조직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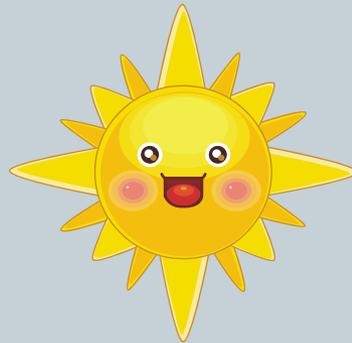
- 1881: 아틀란타 세탁협회의 10일간 파업
- 1937: 가사노동자협회 창립
- 1942: 가사노동자연대 - 산업노조 1283 지부 창립
(마리랜드주, 발티모어)
- 1965: 미국가사노동자 창립
- 1968: 전미가사노동자노조
- 1969: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사노동자 단체 출범



최근의 조직화 현황



- 1993: 인도적 이민자권리를 위한 연합 (L.A)
- 2000: 가사노동자 연대(DWU) (뉴욕)
- 2007: 전미가사노동자동맹
- 2009: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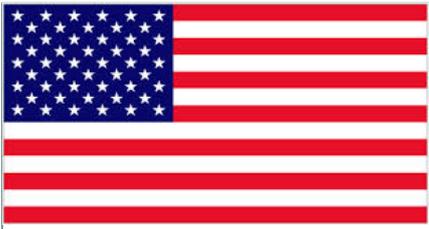




성공적인 캠페인 사례



- 뉴욕에서 “가사노동자권리장전” 성취라는 역사적 승리(2010).
- 그러나, 홈케어 노동자는 “동반자 예외 조항”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됨.



홈케어 노동자의 노조



- **UHW** : 캘리포니아 홈케어 노동자 연대
- **SEIU- ULTCW** (서비스 노동자 국제 노조 - 장기요양 노동자 연대 캘리포니아 지부)



SEIU의 성공적 조직화 사례



- 1973년, 캘리포니아 재가활동보조서비스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체계 성립.
- 20만여명의 유색인종 여성과 이민자 여성들이 홈케어 노동자로 일하는 중.
- SEIU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홈케어 노동자들을 노조원으로 조직하였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예, 임금인상, 의료보험 혜택 등)



**SEIU
ULTCW**



United Long Term Care Workers®



조직화의 성공적 지침과 주요 이슈들

카운티	조직화 시작	공공당국 조례 통과	노조 선거	노조 계약	노조원 수	조건
로스엔젤레스	1987	1997	1999	1999- 2004	74,000	\$6.75/hr 의료보험
알라메다	1993	1993	1994	1997-2000 2000-2002	7,000	\$7.82/hr 의료보험
샌프란시스코	1993	1995	1996	1997-2000 Currently in negotiations	8,000	\$9.70/hr 의료보험, 치과혜택

(from Delp and Quan, 2002)
(California minimum wage in 2002: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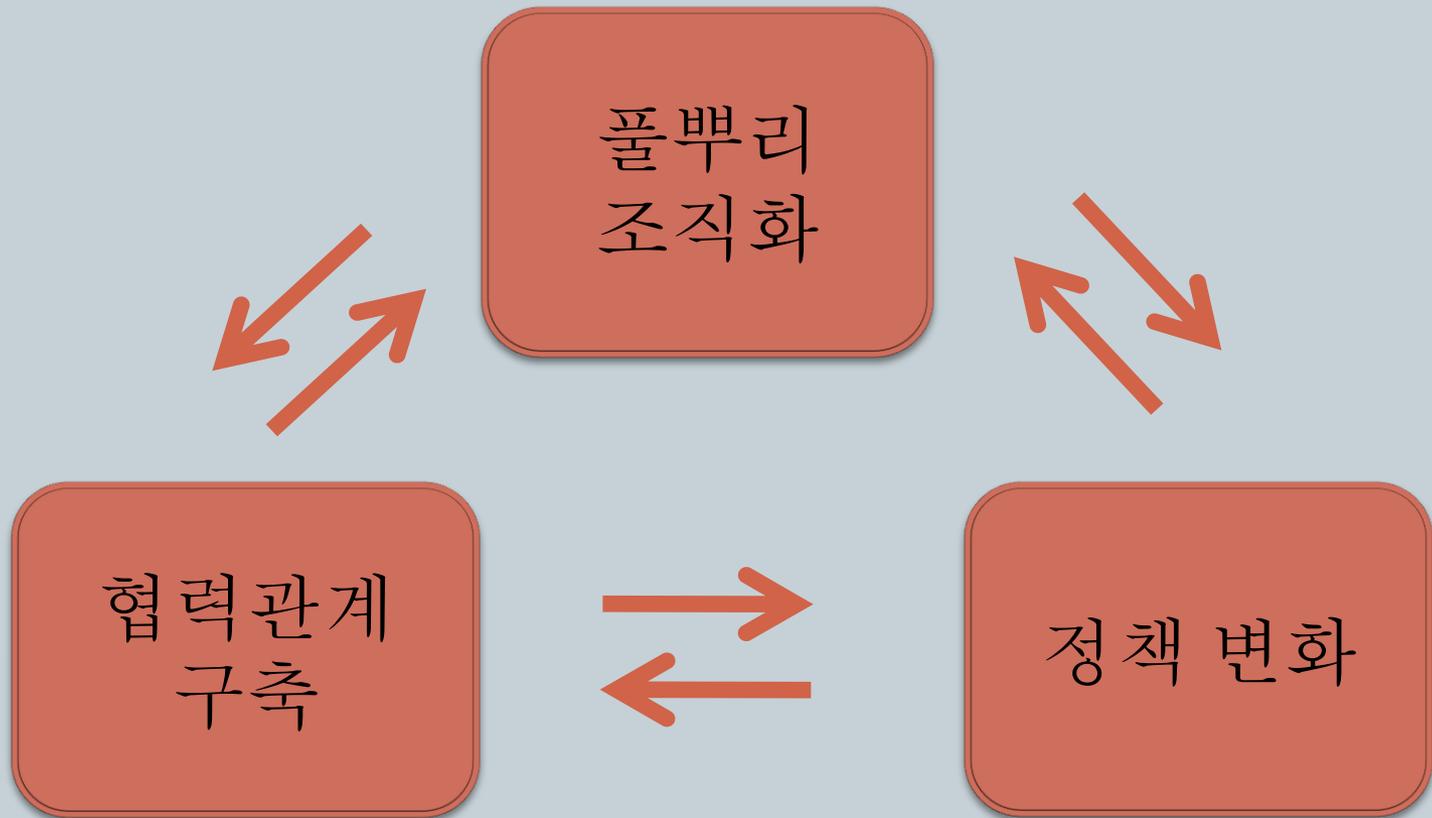
(계속)



- 도시지역 카운티에서는 홈케어 노조들이 임금인상 협상을 할 수 있었음.
- 결과적으로, 2008년 캘리포니아내 50개 카운티가 연방 최저임금인 8 달러보다 높은 시급을 지불하고 있었음.
- 2008년, 대부분의 카운티가 시간당 \$11.5를 지불하고 있었고, 이중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8개 카운티의 시간당 임금이 이것보다 더 높아,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베이 지역의 산타 클라라 카운티는 \$12.35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임금 수준이다. (2008)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from Delp and Quan, 2002)



- **풀뿌리 조직화와 정치적 동원:** 매일 매일의 노동자들이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홈케어 노동자들을 조직. 이 풀뿌리 조직화는 모든 일의 중심이며 토대가 된다.
- **정책변화:** 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것은 변화를 이루어 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협력관계 구축:**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지원단체 사이의 협력. 이것은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조직화의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캐나다의 홈케어노동자 조직화



- 개괄:
- 캐나다의 홈케어 노동자는 주로 여성과 이민자들
- 노조에 가입된 홈케어 노동자들은 임금수준도 더 높고 복리후생혜택도 더 낫다. 하지만, 대부분의 홈케어노동자들은 아직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복리후생혜택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
- 조직화의 어려움: 일자리 이동이 빈번하고, 고객의 가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며, 언어소통의 어려움도 있음.



노동조합



- 캐나다 공공노조연맹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 서비스노동자국제노조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 캐나다 제1지부 (온타리오 주)
 - 캐나다 제2지부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번다



노조 가입여부	시간당 임금
노조원	\$13.49
비노조원	\$11.95
전체	\$12.71

홈케어노동자의 전국평균 시간당
출처: 캐나다 홈케어 협회, 2003



성공적 조직화 사례



- SEIU의 성공사례: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1년 홈케어 노동자 등록시스템 (PSW registry) 실시를 발표.



- SEIU 노조원들이 등록시스템을 하겠다는 정부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한국의 홈케어 노동자 조직화



- 개괄:
- 2008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보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다.
- 2013년 현재 전체적으로 20만명의 재가요양보호사와 2만 2천여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일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홈케어노동자의 역사는 이제 겨우 5년으로 짧지만 매우 빠르고 전투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한국의 홈케어노동자 조직화

- 2008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출범
- 2008 장애인활동보조인연대 출범
- 2009 전국요양보호사 협회에서 선전전, 로비, 피켓팅, 법률 감시 활동 등을 펼친 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 받음.
- 2011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로비, 피켓팅,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벌인 후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음.



2009, 제1회 전국
요양보호사 한마당
(서울)



- 2012 충청도에서 300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건으로 진정하여 2억 3천만원을 되돌려 받음.
- 2012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함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를 설립.
- 2013. 3.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조 설립
- 2013. 3.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
 - (월 10만원)



2012. 보건복지부 앞 요양보호사 집회 (서울)

질문?





감사합니다!!

이 교육자료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이민여성봉사회

